

# 한일(韓日) 근대문학과 엘렌 케이

구인모\*

1. 서론
2. '연애의 자유' 대(對) '자유연애' — 우생학적 연애론
3. 일본에서의 엘렌 케이 수용양상
4. 조선의 연애담론과 엘렌 케이의 수용
5. 이광수의 혼인론과 엘렌 케이의 '연애의 자유'
6. 한국 근대소설과 엘렌 케이
7. 결론

---

\* 동국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국문초록
------

한국과 일본의 근대문학에서 엘렌 케이의 사상은, 근대적인 개인의 자아발견, 성장, 그리고 국민국가 형성과 사회개조에 공헌하는 문학적 담론들과, 이러한 이념에 근간한 문학작품까지 생산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경우 외래의 지식, 즉 번역어로서 '연애'가 한국근대문학, 나아가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성의 특징적 국면들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시사한다. 그러나 인종개량을 위한 우생학적 연애론으로서 엘렌 케이의 사상은, 조선과 일본에서 1920년대에 이르면 연애지상주의의 논리로 뒤바뀐다. 이러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본래 엘렌 케이의 사상 그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조선의 경우 1919년에서 1920년에 걸친 식민지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고, 일본의 경우 메이지기의 이상인 문명개화론이 폐기되기에 이르렀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핵심어 : 엘렌 케이, 연애, 근대문학

## 1. 서론

적어도 19세기 이후 일본, 중국, 한국에서 외래적 지식, 그 지역권의 지식인들의 요구에 따라 번역, 번안, 전용과 같은 ‘통언어적 실천(通言語的實踐, Translingual Practice)’의 형태로 도입, 선택, 결합되고 또 재고 안되었다면,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어휘, 의미, 담론이 나타나고 정통성을 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면,<sup>1)</sup> 서양의 ‘Love’의 번역어인 ‘연애(戀愛)’도 그러한 통언어적 실천의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본에서 ‘연애’라는 어휘의 등장, 유통, 정착의 과정을 면밀하게 살핀 야나부 아키라(柳父章)라는 연구자가, “연애는 일본에 없었다”라고까지 단언했던 것도<sup>2)</sup>, 이 ‘연애’가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인직(李人植)의 『혈의 누』(1906)에서 구완서가 옥련과 혼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서양 사람과 같이 서로 직접 말하는 것이 옳”다면서 “조선말로 하면 입에 익은 말로 외짝해라 하기 불안하다”<sup>3)</sup>는 이유로 영어로 수작하는 대목은, ‘혼인’이라는 행위가 낯선 외래 지식과 의미에서 비롯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때 ‘혼인’은 더 이상 인류사가 전개된 이래 줄곧 존재해 온, 남녀 간의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하는 상호 교제, 그리고 사회적 계약관계로서의 결혼이 아니다. 그것은 번역어 ‘연애’를 정의하고 ‘연애’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담론이 요구하는 근대적인 남녀 관계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 
- 1) Lydia H. Liu, ‘Language and Cross-Cultural Studies’, *Translingual Practice : Literature, National Culture, and Translated Modernity-China 1900~1937*, Stanford : Stanford Univ. Press, 1995, p.25. 이와 관련한 일본의 사정에 대해서는 丸山眞男, 『日本の思想』, 岩波書店, 1977과 丸山眞男·加藤周一,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書店, 1998을 참고할 것.
  - 2) 柳父章, 「戀愛—北村透谷と「戀愛」の宿命」, 『翻譯語成立事情』, 岩波書店, 1986, p.87. 柳父章, 「日本語「愛」の歴史」, 『一語の辭典「愛」』, 三省堂, 2001.
  - 3) 이인직, 「혈의 누」, 이인직 외 『신소설』(한국소설문학대계1), 두산동아, 1995, p.61.

20세기 초 한국에서 근대적 남녀관계로서 '연애'와 '혼인'을 정의하고 그것에 정통성을 부여했던 것도 외래의 지식으로부터 비롯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광수도 개탄해마지 않았던 것처럼, 당시 조선사회가 '연애'라는 단어를 두고 "君子の 입에도 담지 못할 것같이 생각하"4)던 분위기가 엮음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 사실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근대적인 남녀관계로서 '연애'와 '혼인'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장성한 남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맺게 했던 외래의 지식은 과연 무엇이었고,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이입되었고, 또한 그것은 한국에서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게 했던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단서가 바로, 이광수(李光洙)의 『무정』(1917) 제70회에서 이형식이 자신의 독서이력을 열거하는 가운데, 루소, 셰익스피어, 괴테, 크로포트킨 다음으로 "엘렌 케이 여사(女史)의 전기(傳記)를 보았다."5)는 대목에서 등장한, 엘렌 케이라는 이름이다. 이 엘렌 케이(Ellen Karolina Sofia Key, 1849~1926)라는 이름은, 이광수의 『무정』을 비롯한 몇 편의 한국 소설과, 20세기 초 한국의 지식인들의 적지 않은 수의 연애론과 혼인론을 통해 근대 자유연애론의 대명사로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여성학사나 여성학 사전의 한 면에서나 겨우 이름을 찾을 수 있는 이 엘렌 케이는, 『아동의 세기(The Century of Children)』(1901), 『연애와 결혼(Love and Marriage)』(1911), 『연애와 윤리(Love and Ethics)』(1912) 등의 저서를 통해 연애와 결혼, 나아가 모성과 육아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윤리를 제시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스웨덴 출신의 여성운동가이다. 엘렌 케이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스웨덴 여성운동의 대표격이었던 소피 아틀레르스파레(Sophie Adlersparre)에게서도 인정받았던 여성운동가였으며, 극작가인 헨릭 입센(Henrik Ibsen)을 비롯해서 엘레자베스 B. 브라우닝(Elizabeth B. Browning), 조지 엘리

4) 이광수, 「婚姻에 對한 管見」, 『이광수전집』(17), 삼중당, 1962, pp.55~56.

5) 이광수, 「무정」, 『무정 外』(한국소설문학대계 2), 동아출판사, 1995, p.216.

엇(George Eliot),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등, 당대의 작가, 지식인들과도 폭넓게 교류했던 인물이었다.<sup>6)</sup> 그리고 이미 20세기 초에는 스웨덴을 넘어서 독일, 미국 등의 유럽에서는 물론, 심지어 일본과 중국에서까지 엘렌 케이의 저서가 번역되어 가히 전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다.

이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다이쇼(大正)기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서 연애, 결혼, 아동교육, 노동운동, 심지어 민중예술론에 대한 최첨단의 사회사상가로서 추앙받고 있었던 이 엘렌 케이라는 인물이, 한국에서 자유연애의 선구자로 알려지면서, 허다한 문학과 그 외 정론적 성격의 논설에서까지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소설, 문학평론 나아가 그 외 다양한 논설에서까지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국 근대문학의 시발을 알리는 이광수의 『무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근대문학이 문학, 연애, 청춘을 사실상 동의어의 관계에 놓는 가운데에서 비롯했던 사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엘렌 케이의 연애·혼인론과 그것이 일본을 통해 조선으로 도입되는 과정을 검토하는 일은, 한국 근대문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연애의 자유’ 대(對) ‘자유연애’ — 우생학적 연애론

그렇다면 이 엘렌 케이의 사상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자신의 연애론의 대표적인 저서인 『연애와 결혼』에서 엘렌 케이는 우선 연애가 오늘날, 그

6) Havelock Ellis, "Introduction",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The Evolution of Love", *Love and Marriage*, N.Y.&London: Knickerbocket Press, 1920, pp.8~9. 社會科學大事典編集委員會, 『社會科學大事典』(5), 鹿島研究所出版會, 1974, p.314. アリス・リュツキンス, 中山庸子譯, 「北歐の先驅者エレン・ケイ」, 『女、自分の道を探す』(スウェーデン女性史3), 學藝書林, 1994.

리고 미래의 진보한 사랑은 단지 남녀의 자유로운 교제, 그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소박한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진화와 함께 성욕이 정화, 혹은 순화되면서 나타나는 윤리의 정신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애를 기초로 한 결혼은, 무엇보다도 감정과 영혼의 일치, 욕망과 의무, 자기주장과 자기헌신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sup>7)</sup> 이러한 엘렌 케이의 연애, 결혼관은 그것이 단지 개인뿐만 아니라 인종 전체의 중요한 문제임을 주장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연애진화론이라고 일컬어도 무방하다. 그녀에 따르면 모든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대를 낳을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 권리와 의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연애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 또한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종의 개량에 있는 만큼, 연애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성숙, 즉 경제력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갖추어야 한다.<sup>8)</sup> 연애와 결혼을 새로운 세대의 생산을 위한 단계로 보았던 엘렌 케이는, 연애와 결혼의 주체 가운데에서 특히 여성이 생득적으로 지닌 모성(母性)으로 인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또한 모성의 소유자로서 여성의 고유의 영역은, 창조력, 애정, 모성,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모성주의 페미니즘으로 분류되는<sup>9)</sup> 엘렌 케이의 사상은, 여성이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가정 외의 노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고, 여성의 모성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모성보호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급진적인 주장까지 담고 있었다.

그런데 엘렌 케이의 이 모성주의 페미니즘의 연애진화론은, “인종의 생

7)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The Evolution of Love”, op. cit., p.105.

8)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Love’s Freedom”, op. cit., pp.116~117, p.119, pp.127~129.

9) Lisa Tuttle, 渡辺和子監譯, 『フェミニズム事典』, 明石書店, 1991, pp.193~194. L. Breakman, 上野和子外譯, 「第11章 1840年から1849年まで」, 『世界女性史大事典』, 日外アソシエーツ, 1997, pp.271~272.

특적인 질의 개량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과, 그것에 의해서 그 질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sup>10)</sup>이라는 우생학(優生學, Eugenics)의 간명한 정의만을 염두에 두고 보더라도, 우생학의 논리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엘렌 케이의 단순한 연애지상론자가 아님을 시사한다. 사실 그녀 스스로도 미숙한 남녀의 문란한 연애를 의미하는 ‘자유연애(free love)’보다도 ‘연애의 자유(freedom of love)’를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애써 강조한다. 엘렌 케이의 이른바 ‘연애의 자유’는 인종개량의 목적에 적합한 조건에 따라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이고<sup>11)</sup>, 이 배우자의 선택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질병의 유무, 건강, 아름다운 외모 등이다.<sup>12)</sup> 아울러 이 연애의 자유를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종교적 편견, 추상적인 이념과 의무, 가부장적 권위 등은 모두 폐기의 대상에 불과하다.<sup>13)</sup> 바로 이러한 사정에서 인종개량을 위한 연애의 자유는 또한 반대로 인종개량을 위한 이혼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성숙(mature)’한 인간만이 인종개량이라는 인류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우생학의 논리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은 정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생리적인 것이며, 연애와 결혼은 우생학의 실천을 위한 부수적인 이익이거나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결혼과 성생활이 안정된 가정과 국가를 낳는다는, 19세기 전반에 걸쳐 유럽에서 이루어진 성통제와 모성 이데올로기의 20세기적 변형태라고 할 수 있다.<sup>14)</sup> 엘렌 케이의 한편으로는, 인종개량에 유리한 조건

10) 米本昌平, 「イギリスからアメリカへ—優生學の起源」, 米本昌平 外, 『優生學と人間社會』, 講談社, 2000, p.23.

11)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Love’s Selection”, op. cit., p.150.

12)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Ibid., p.145.

13)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Ibid., pp.142~143.

14) 이에 대해서는 조은·이정옥·조주현, 「V. 근대가족의 이면과 환상: 실태와 담론」,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20세기문명연구 총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을 참조할 수 있다.

에서 이루어지는 연애선택에 대해 자유를 부여하는 것, 인종개량에 불리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생식의 자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것 모두 생명의 경계선<sup>15)</sup>임을 역설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인종개량을 위한 연애의 창조력을 예술의 창조력과 동일하다고 본 것<sup>16)</sup>도, 바로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한다.

아울러 민족주의와 성도덕의 규범을 결합시킨 온건파 페미니스트이자 작가인 비에른스티에르네 비에른손(Bjørnstjerne Bjørnson)이 엘렌 케이의 사상의 형성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sup>17)</sup>이나,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의 영문판 서론을 쓴 영국의 성심리학자(性心理學者) 하벨록 엘리스(Havelock Ellis, 1859~1939)가 “연애만이 인종개량의 최선의 실험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서 1920년대 일본과 중국의 우생학적 연애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sup>18)</sup>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보면, 엘렌 케이의 연애, 결혼관이 위치한 지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엘렌 케이의 연애, 결혼관은 비단 근대적 개인의 인격적 독립, 정체성의 확립을 강조하는 근대적 시민사상의 이론적 기반으로서 의미<sup>19)</sup>를 지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국가 형성에 이론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15)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Ibid., pp.150.

16)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Love’s Freedom”, op. cit., pp.125~126.

17) 리처드 에번스(Richard J. Evans, 정현백 외 옮김, 「2. 온건파와 급진파」, 『페미니스트—비교사적 시각에서 본 여성운동 1840~1920』, 창작과비평사, pp.114~115. Havelock Ellis, “Introduction”,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op. cit., pp.8~9.

18) 하벨록 엘리스와 중국의 우생학적 연애론에 대해서는, 坂本ひろ子, 「戀愛神聖と民族改良の「科學」」, 《思想》, 岩波書店, 1998, 12를 참조할 수 있다.

19) 江守五男, 「第三章 現代における婚姻思想の史的展開」, 『現代婚姻思想の展開』, 國書刊行會, 1977, pp.89~90.



### 3. 일본에서의 엘렌 케이 수용양상

본래 스웨덴어로 씌어진 엘렌 케이의 저서가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되어 출판된 것은 1911, 12년이지만, 영역본의 출판이 이루어지는 4년 전인 1907년 메이지 일본 문학계의 대표적인 평론가였던 타카야마 츠구(高山樗牛)는 엘렌 케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가 「타야마 카타이(田山花袋)의 『이불(布団)』(田山花袋の「布団」)」이라는 평론에서 “스웨덴의 학부(學婦) 엘렌 카이(필자주:엘렌 케이)의 자유연애설도 머지않아 우리 여류에 의해 창도(唱導)될 것이다”<sup>20)</sup>라고 한 것은, 이후 일본, 중국, 조선에서의 엘렌 케이의 유행에 대한 예언적 진술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후 일본에서 엘렌 케이는 문학평론가 혼마 히사오(本間久雄)에 의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하는데, 그는 1912년에 《와세다문학(早稻田文學)》에 발표한 「엘렌 케이 여사의 연애도덕론(エレン・ケイ女史の戀愛道德論)」을 비롯해서 『부인과 도덕(婦人と道德)』(1913), 『엘렌 케이 사상의 진수(エレン・ケイ思想の神髓)』(1915), 『와야 할 시대를 위하여(來るべき時代の爲に)』(1916), 『전쟁과 평화 그리고 장래(戰爭と平和及び將來)』(1918), 그리고 『엘렌 케이 논문집(エレンケイ論文集)』(1922)에 이르기까지, 당시로서는 엘렌 케이에 관한 가장 많은 저서를 남겼다.

당시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연구자로서, 시마무라 호게츠(島村抱月)와 더불어 일본 자연주의문학의 대표적 평론가 명성이 높았던 혼마 히사오가, 엘렌 케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엘렌 케이의 ‘연애의 자유’를 통해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이 자아로서의 권위를 재구축할 수 있는 비전을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일상적인 영역, 즉 섹슈얼리티의 영역과 메이지 일본의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에서

20) 高山樗牛, 「田山花袋の「布団」」, 《新小説》, 1907.10.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혼마 히사오는 1919년 이쿠다 초코(生田長江)와 공저로 발표한 『最新社會問題十二講』(新潮社, 1919)에서, 엘렌 케이를 이른바 유럽의 부인운동, 성도덕의 혁명과 관련해서 중요한 인물로 소개하면서, 20세기의 중요한 사회개조의 사상으로 평가한다.<sup>21)</sup> 요컨대 혼마 히사오에게 엘렌 케이의 사상은 단지 연애론이나 여성운동의 사상으로서만이 아니라, 근대적 개인의 자아 발견의 사상이고, 사회개조의 사상이었던 셈이다.

한편 엘렌 케이의 사상은 근대 일본의 초기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던 히라츠카 라이쵸(平塚らいてう)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엘렌 케이의 히라츠카 라이쵸우에의 영향은, 1911년 히라츠카 라이쵸우가 창간한 여성 문예지 《세이토(靑鞆)》의 창간사인 「태초에 여성은 태양이었다(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에서부터 자명하게 나타난다. 여성이 태양으로서 남성에게 가려진 달이 아니라, 여성 또한 태양<sup>22)</sup>이라는 히라츠카 라이쵸우의 주장은, 여성이 선천적으로 타고 난 모성(母性)으로 인해서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한 엘렌 케이의 사상에 근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후 히라츠카 라이쵸우는 비록 미완에 그쳤으나 1913년에는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의 번역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엘렌 케이의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언급한 혼마 히사오와 달리, 히라츠카 라이쵸에게서 주목해야 할 점은, 1913년에 발표한 「새로운 여성(新しい女)」과 「세상의 부인들에게(世の婦人たち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무능력과 남편의 창부(娼婦)로서의 지위에 만족하는 일본 전통의 현모양처주의가 아닌, 근대적인 개인으로서 '새로운 여성(新しい女)'의 상을 제시한 데에 있다.<sup>23)</sup> 히라츠카 라이쵸가 천명한 태양으로서의 새로운 여성은, 연애, 결혼,

21) 生田長江・本間久雄, 「第十講 性的道德の革命」, 『最新社會問題十二講』, 新潮社, 1919.

22) 平塚らいてう, 「元始女性は太陽であった」, 《靑鞆》(第一卷一号), 1911.9. 平塚らいてう著作集編集委員會編, 『靑鞆—平塚らいてう著作集』(第一卷), 大月書店, 1983.

생식, 육아를 통한 인류의 개조를 모성의 권리로 지니는데, 이러한 새로운 여성은 모성의 권리를 위해서는 이혼의 자유마저 지닌다<sup>24)</sup>고 한다. 히라츠카 라이초의 엘렌 케이 사상에 근간한 모성주의는 이후 1918년에 여성 와카(和歌)시인인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와 이른바 ‘모성보호논쟁’을 벌이면서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이 논쟁에서 히라츠카 라이초는 여성의 모성이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여성은 모성에 의해서만 개인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sup>25)</sup> 이러한 모성주의에 근간해서 이후 히라츠카 라이초는 호주제 반대, 여성차별적인 간통죄 반대, 화류병 남성의 결혼제한의 주장, 그리고 여성의 참정권요구까지 나아갔다.

혼마 히사오와 히라츠카 라이초우가 엘렌 케이의 사상에서 근대적 개인의 자아발견과 해방의 논리에 주목했다면, 영문학자였던 쿠리야가와 하쿠손(廚川白村)은 엘렌 케이의 사상을 연애지상주의의 결혼관으로 이해했다. 쿠리야가와 하쿠손은 『근대의 연애관(近代の戀愛觀)』(1922)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서양 근대문학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영육일치(靈肉一致)의 연애론의 근대적 버전이 바로 엘렌 케이의 사상이라고 주장했다. 엘렌 케이의 사상이 근대인의 개인주의 사상의 전형으로 본 쿠리야가와 하쿠손은, 연애결혼이 민족과 인류의 발달의 근간이라거나, 결혼의 물리적인 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연애의 감정이 없는 결혼은 무효라거나, 결혼생활 중에도 연애의 감정이 소멸되면 이혼은 정당하다는 엘렌 케이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쿠리야가와 하쿠손은 바로 이러한 엘렌 케이의 사상을 헨릭 입센의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를 이해하는 근거로 제시했을 뿐<sup>26)</sup>, 엘렌 케이의 사상의 배면에 자리한 우생학의

23) 平塚らいてう, 「新しい女」, 위의 책, p.257. 「世の婦人たちへ」, 『母性の主張について—平塚らいてう著作集』(第二卷), 大月書店, 1984, p.258.

24) 平塚らいてう, 「離婚しえない悩み」, 『社會改造に對する婦人の使命—平塚らいてう著作集』(第三卷), 大月書店, 1983, pp.255~261.

25) 平塚らいてう, 「母性保護の主張は依頼主義か」, 『婦人公論』, 1918.5.

논리, 국민국가 형성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다이쇼(大正)기 일본의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요컨대 근대 일본에서의 엘렌 케이의 수용은, 지금까지 검토한 혼마 히사오, 히라츠카 라이쵸, 쿠리야가와 하쿠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엇보다도 근대적인 개인의 자아발견과 해방의 논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쿠리야가와 하쿠손의 경우가 다소 예외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근대 일본의 사회개조의 논리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4. 조선의 연애담론과 엘렌 케이의 수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엘렌 케이의 이름을 조선에서 처음으로 거명한 것은 이광수였으나,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엘렌 케이를 소개한 가장 이른 사례는 시인 노자영(盧子泳)이 발표한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엘렌 케이」(《開闢》, 1921. ?)이다. 이 글의 모두에서 노자영이 “生田君의 「엘렌 케이」론을 토대로 삼고 있다”고 밝힌 것이나, 이 글이 엘렌 케이의 간략한 전기적 사실과 연애의 자유, 이혼의 자유, 모자보건 사상에 대한 경개(梗概)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이쿠타 츠코와 혼마 히사오의 『최신사회문제십이강』의 「제10강 성도덕의 혁명(第十講 性的道德の革命)」을 근간으로, 일본에서의 최초의 완성도 높은 엘렌 케이 번역인, 하라다 미노루 번역의 『연애와 결혼(戀愛と結婚)』(1920)을 참고해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엘렌 케이의 전기적 사실과 관련한 부분

26) 厨川白村, 「5. ノラはもう古い—近代の戀愛觀」, 『戀愛觀及雜纂(厨川白村全集第二卷)』, 改造社, 1929, pp.25~29.

은 하벨록 엘리스의 서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자영 이후 1940년까지 조선에서 엘렌 케이의 글을 소개한 글은 대략 여섯 편이 확인되는데<sup>27)</sup>, 대부분 내용과 차례가 노자영의 글과 큰 차이가 없다. 심지어 한편의 글을 두고 여러 사람이 저마다 번역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내용에서 표현에 이르기까지 서로 흡사하다. 그 가운데에서 1932년 2월 《東光》에 발표된 「戰爭과 婦人」은 혼마 히사오의 『엘렌 케이 논문집(エレン・ケイ論文集)』의 한 장인 「부인과 전쟁(婦人と戰爭)」을 번역한 것으로 보이고, 외관생(外觀生)이 1926년 6월 《新女性》에 발표한 「女權運動의 어머니인 엘렌 케이 女史에 對하여」 또한 혼마 히사오가 1926년 4월 『國民新聞』에 발표한 「작고한 엘렌 케이—그 인물과 사상(逝けるエレン・ケイ—その人物及思想)」의 번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혼마 히사오의 영문번역을 중역한 것이거나, 그나마도 기자에 의한 발췌번역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일본의 경우 혼마 히사오가 엘렌 케이의 『연애와 윤리(Love and Ethics)』(1912)가 미국에서 영역된 이듬해에 곧바로 일본어 번역으로 『부인과 도덕(婦人と道德)』(1913)을 발표하고 그 외에 『엘렌 케이 사상의 진수(エレン・ケイ思想の神髓)』(1915)를 번역한 사정이나, 히라츠카 라이초가 『연애와 결혼(Love and Marriage)』(1911)가 미국에서 영역된 2년 후에 일본어 번역을 시도한 사정, 그리고 교육학자였던 하라다 미노루가 『연애와 결혼(戀愛と結婚)』(1920), 『연애와 윤리(戀愛と倫理)』(1921)를 완역한 사정과 비교해 볼 때, 조선에서는 엘렌 케이의 저서가 단 한 권도 번역되지 않고 소개의 논문만 이중역으로 번역된 것은, 조선에서 엘렌 케이의 사상이 대단히 소

27) 그 여섯 편의 글은 다음과 같다. 七寶山人, 「엘렌 케이의 戀愛觀」, 《신여성》, 1926.1. 권영빈, 「엘렌 케이 女史의 別世日을 당하여 그 思想을 紹介한다」, 《時代日報》, 1926.1. 外觀生, 「女權運動의 어머니인 엘렌 케이 女史에 對하여」, 《신여성》, 1926.6. 「母親과 兒童保護의 뜻」, 《東亞日報》, 1927.4.23. 이헌구, 「엘렌 케이 사상적 진폭」, 《朝鮮日報》, 1936.4.28. 채정근, 「생명의 사도 엘렌 케이」, 《여성》, 1940.9.

박한 형태로 수용되었음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性的 道德上에 新說을 唱導'한 엘렌 케이의 사상 가운데, "어디한 結婚이던지 거기 戀愛가 잇스면 그것은 道德이다. 假量 어찌한 法律上에 手續을 經한 結婚이라도 거기 戀愛가 업스면 그것은 不道德이다", "戀愛의 最高典型은 道德的으로나 知識的으로나 同一한 水平線上에 잇는 男女間에만 존재한다. 이가티 男女가 相互間 自己를 完成하기 爲하여 相互間 사랑하는 것이 最高典型이다"<sup>28)</sup>라거나, "戀愛업는 結婚生活를 繼續하는 것은 다못 不快와 無意味할 畚만 아니고 一步를 進하여 反히 一種의 罪惡이라는 것을 肯定할 수가 있다. 조차서 自由離婚의 主張은 돌이켜 現代結婚生活의 弊害를 矯正"<sup>29)</sup>한다는 골자는, 소개하는 입장에서 두는 강조점의 상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엘렌 케이의 이러한 연애, 결혼관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인종개량이나 국민국가 형성의 문제가 축소 혹은 결락된 채 소개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일본의 경우에서 등장하는 국민국가의 문제는 일단 논의로 하더라도, 인종개량의 논의도 '인생의 향상', '사회적 행복'(노자영), '사회의 眞善眞美한 改造'(칠보산인), '사회적 봉사'(외관생)와 같은 추상적인 표현들에 그 의미가 퇴색되기 일쑤이다. 적어도 1940년 9월 《女性》에 발표된 채정근의 「생명의 사도 엘렌 케이」가 발표되기 전까지 엘렌 케이를 소개한 글의 대개는, 엘렌 케이의 이른바 '자유연애'와 '연애의 자유'의 개념이나 가치를 준별하는 것에는 깊은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에 비해 채정근의 글은 엘렌 케이의 연애, 결혼관이 "뫼대기들의 소위 연애지상주의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소개론들과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는 아울러 "오늘의 인류는 현재보다 저렬한 조상으로부터 좀더 고상하고 우량한 인류에 도달하

28) 盧子泳,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엘렌 케이」, 《開闢》, 1921.2, pp.52~53.

29) 노자영, 「女性運動의 第一人者 엘렌 케이」(전호 숙), 《開闢》, 1921.3, p.48.

는 다리(橋梁)에 불과하”다는 진화론적 관점이나, 연애가 “보다 훌륭한 자제(子弟)—즉 생명 증진의 구현적(具顯的) 표징—를 낳기 위한 결혼의 중점”<sup>30)</sup>이라는 우생학적 관점이 엘렌 케이의 사상의 근간임을 비교적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결혼을 통한 보다 훌륭한 자제를 생산하는 일을, ‘휴머니티’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 5. 이광수의 혼인론과 엘렌 케이의 ‘연애의 자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노자영을 비롯한 일군의 조선 지식인들이 엘렌 케이의 소개논문을 발표하기 이전인 1910년대에 이광수가 발표한 몇 편의 혼인론에 엘렌 케이의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광수가 혼인론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던 시기가 대체로 1916년에서 1917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면, 하라다 미노루의 번역서나, 이쿠다 초코와 혼마 히사오의 『최신사회문제십이강』을 참고할 수는 없었을 터이고, 그 전에 일본에서 발표된 혼마 히사오의 엘렌 케이 소개 논문과 번역, 그리고 영역된 엘렌 케이의 저서를 참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정』에서 이형식이 언급한 엘렌 케이 여사의 전기도 오늘날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하벨록 엘리스의 서문이나 그것을 소개한 일본의 논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광수의 「혼인에 대한 관견」은 무엇보다도 혼인의 목적이 “생식과 행복을 구함”에 있고, 생식의 이상은 ‘개체의 번영’과 ‘종족의 번영’을 통해서 ‘일민족이나 전세계인류의 발달’에 있다는 데에서<sup>31)</sup>, 연애를 통한 개인의 행복이 종족의 증진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한<sup>32)</sup> 엘렌 케이와의 관

30) 채정근, 위의 글, pp.70~71.

31) 이광수, 「혼인에 대한 관견」, 『이광수전집』(17), 三中堂, 1962, pp.53~54.

32)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The Evolution of Love”, op. cit., pp.105~106. エレン・ケイ, 原田 實 譯, 「性的道德發達の経路」, 『戀愛と結婚』.

게를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더군다나 혼인의 조건이 '선조와의 유전이 극히 유력한' 정신력, 충분한 발육, 자녀의 교육과 일가경제를 담당할 경제적 능력, 그리고 연애<sup>33)</sup>라는 점, 그리고 남자의 경우 25세, 여자의 경우 20세 이상이라는 결혼의 적령을 설정한다는 점까지, 앞서 언급한 엘렌 케이의 혼인의 조건<sup>34)</sup>과 부합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광수 스스로 '진화한 연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이는 "가장 교육을 잘 받은, 가장 건전하게 발육한 청춘 남녀"의 연애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다만 용모, 음성, 거동과 같은 '표면의 미(美)'만을 좇는 연애는, "동물적 또는 원시적 愛"에 불과하며, "영(靈)과 육(肉)이 애착(愛着)한 연애"가 아닌 육적 요구만을 좇는 연애는, '비문명적 연애'에 불과한 것이다.<sup>35)</sup> 그리고 그것은 엘렌 케이의 표현을 빌자면 '연애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연애'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논리에서 「조혼의 악습」(1916)도 쓰여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론」론 보다 몇 개월 앞서 발표된 이 글에서 이광수는, 조혼의 폐해를 '생리학적 방면', '윤리적 방면', '경제적 방면'에서 조목조목 비판한다. 조혼은 생리학적으로는 조선인의 체질과 정신력을 소모시키고, 윤리적으로는 교육을 통해 학술·사업·사회·명예·역사·문화 등의 인류의 보물을 이해하는 기회를 차단하고 오로지 '食·色 중심의 야만적 인생관'만을 고착시킬 뿐이며, 경제적으로는 독립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에 큰 죄를 짓고 큰 해를 끼치게 한다는 것이다.<sup>36)</sup> '家道の 昌盛과 社會의 福榮'을 위해 조혼을 폐지해야 한다는 이광수의 이러한 논리가, 미성년의 성적 결합이 종족의 생명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죄악으로 보고,

大同社, 1920, pp.63~64.

33) 이광수, 「혼인에 대한 관견」, 「혼인론」, 위의 책, pp.54~55, p.145.

34)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Love's Freedom", op. cit., pp.117~118. エレン・ケイ, 原田 實 譯, 「戀愛の自由」, 위의 책, pp.136~137.

35) 이광수, 위의 글, p.56.

36) 이광수, 「早婚의 弊害」, 『이광수전집』(1), 삼중당, 1962, pp.499~503.



그 폐해를 유전적, 경제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지적한<sup>37)</sup>, 엘렌 케이의 조선어 버전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광수가 「혼인에 대한 관견」과 「혼인론」을 발표했던 배경에는 그 자신이 열아홉 살에 결혼해서 아들까지 두고 있었고, 조혼에 대해서 적개심에 가까운 불만을 품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그의 「혼인론」이 1920년대 이후 몇 편의 엘렌 케이론들과 분명한 경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그의 혼인론이 사실은 계몽의 기획, 나아가 국민국가 형성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가 혼인의 「최후의 조건」이 바로 “國家의 民이요, 社會의 員”으로서 “國家의 命令과 社會의 約束을 遵守할 義務”를 다하는 것<sup>38)</sup>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혼인론은 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지·덕·체의 함양을 통한 근대적 개인,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성숙’을 인생의 과제로 부여하는 동시에, 이 ‘성숙’한 개인의 결합을 통한 민족의 번영을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1917년 11월 21일에서 30일까지 《每日申報》에 연재된 「婚姻論」에서 “혼인은 생물학적 필연의 요구”이며, “날로 발달하는 과학”의 영역임<sup>39)</sup>을 강조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엘렌 케이의 우생학적 연애론을 바로 ‘생물학’,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엘렌 케이의 우생학적 연애론이, 연애와 혼인에 대한 근대적 각성을 촉구하는 ‘신문명의 가르침’이라면, 이광수가 ‘연애의 자유’, ‘자유연애’를 굳이 ‘진화한 연애’, ‘원시적 애’ 그리고 ‘문명적 연애’, ‘비문명적 연애’로 표현한 것은 당연하다.

37)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Ibid., pp.122~123. エレン・ケイ, 原田實譯, 위의 글, pp.134~135, p.142.

38) 이광수, 「혼인에 대한 관견」, 『이광수전집』(17), 삼중당, 1962, p.57.

39) 이광수, 「婚姻論」, 위의 책, p.138, 145.

## 6. 한국 근대소설과 엘렌 케이

이광수의 혼인론이 엘렌 케이를 배경으로 가능했다면, 그러한 혼인론은 또한 『무정』의 서사를 이루는 중요한 축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무정』의 등장인물들 사이의 삼각관계와 혼사장애를 이해하는 단서가 된다.

(가) “그러면 지금도 그 형식을 사랑하시오?” 사랑하는나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란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칠팔 년래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sup>40)</sup>

(나) “그런 말씀은 왜 물으세요?” “그런 말을 물어야지요.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 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지요” …… “벌써 약혼을 했는데두?” “약혼이 중한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무엇이 중합니까?” “사랑이지요.” “만일 사랑이 없다 하면?” “약혼은 무효지요.”<sup>41)</sup>

인용한 문단은 이형식, 김선형, 박영채가 저마다 “비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구름이 덮혀야 함과 같이 혼인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연애가 와야 한다”<sup>42)</sup>는 결혼의 중요한 전제조건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충분한 사례이다. 이형식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지아비를 ‘사랑’한다고 하는 김선형의 ‘사랑’은,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일 뿐이고, 더군다나 이형식이 김선형에게 요구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이형식이 김선형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이광수가 혼인론에서 역설했던 ‘신문명의 가르침’으로서 ‘진화한 연애’, ‘문명적 연애’일 터이다. 그

40) 이광수, 「무정」, 『무정 외』(한국소설문학대계 2), 동아출판사, 1995, p.271.

41) 이광수, 위의 책, pp.297~298.

42) 이광수, 「혼인에 대한 관견」, 위의 책, p.56.

럼에도 불구하고 『무정』의 등장인물들이 삼각관계와 혼사의 장애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연애와 결혼에 부여된, 근대적 개인,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성숙'이라는 인생의 과제와 민족의 번영이라는 이상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경부선 열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에서 도저히 드러난다. 일찍이 김동인이 『春園研究』(1934~1938)에서 예리하게 지적했지만<sup>43)</sup>, 박영채, 김병욱, 신우선이 저마다 인생의 과제와 민족의 과제를 깨달았더라도 결코 연애나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달리, 『무정』의 결말부분이<sup>1</sup> 이형식과 김선형의 결합을 암시하는 것으로 끝맺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무정』에서 연애의 이상이, 이광수가 「혼인에 대한 관견」에서 언급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가장 건전하게 발육한 청춘 남녀”의 연애에 근거하고 있는 사정에서 비롯한다. 그것은 결국 이형식과 김선형의 결합을 두고 신흥 부르주아에 지식인이 편입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광수의 이러한 작가적 태도는, 엘렌 케이의 개량된 인종을 낳을 권리와 의무를 지닌 ‘젊은이’들을 하층계급이 아닌 상류계급으로 규정할 사실<sup>44)</sup>과 무관하지 않다.

엘렌 케이의 이광수에게 근대적인 연애와 결혼의 이상으로 현현했다면, 한편으로 심훈에게는 근대적 연애의 기호로, ‘연애의 자유’를 통한 ‘모성의 실현’으로 현현한다. 이복순이라는 여성의 성장소설로도 볼 수 있는 『織女星』(1934)에서 엘렌 케이는 조선의 여성이 연애와 결혼을 앞두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의 대명사로 등장한다. 예컨대 인숙이 전통적 양반가문의 규수로서 성장하고 부모의 뜻에 따라 결혼한 복순에게 입센의 「인형의 집」과 엘렌 케이의 사상을 틈나는 대로 강의하는 대목<sup>45)</sup>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동경유학생 장발이 봉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연애편지와 더불어 쿠리

43) 김동인, 「春園研究」, 『백마강·문단삼십년·춘원연구』(김동인문학전집 12), 대중서관, 1983, pp.383~384.

44) Ellen Key, trans. by Arthur G. Chater, Ibid., pp.128~129. エレン・ケイ, 原田實譯, 위의 글, p.149.

45) 심훈, 「적녀성」, 『沈薰文學全集』(2), 探究堂, 1966, p.125.

야가와 하쿠손의 『근대의 연애관』과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을 보내는 대목<sup>46)</sup>이 바로 그러하다. 이때 엘렌 케이와 쿠리야가와 하쿠손의 연애론은 인종개량이나 민족의 번영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근대 서양의 연애와 풍속을 가리키는 기호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심훈의 『직녀성』에서 엘렌 케이는 이러한 삽화로서가 아니라, 주인공 이복순으로 하여금 여성의 모성을 실현을 위해 전통적 의미의 현모양처의 이념과 의무, 사대부가문의 가부장적 권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복순이 남편 윤봉환과 그의 가족들에 의한 학대를 이혼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극복하고, 조선의 아동을 위해 한 몸을 바치는 보육교사로서, 조선의 어머니로 성장하는 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심훈이 이러한 서사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엘렌 케이의 사상 덕분일 터이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에서 엘렌 케이의 반드시 이광수와 심훈의 경우와 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노자영을 비롯해서 다수의 조선 지식인들이 엘렌 케이 사상에서 인종개량이나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걸락시킨 채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한국 근대문학에서도 이광수와 심훈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종개량이나 국민국가 이데올로기의 문제로까지 나아간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쩌면 그러한 사정은 『직녀성』의 장발의 구애 대목에서 엘렌 케이의 근대적인 연애와 여성운동의 교과서인 동시에 하나의 기호 혹은 모드로 등장한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인종개량과 국민국가 이데올로기를 거세한 엘렌 케이의 근대적 연애와 여성운동의 기호 혹은 모드로 등장할 때 그것은 ‘연애의 자유’가 아닌 ‘자유연애’의 대명사로 남을 뿐이다. 그러한 사정을 김동인의 『金妍實傳』(1939)에서 엿볼 수 있다. 동경유학생 김연실에게 조선 여성의 선각자로서 여류문학가로서 자신의 사명은 “연애라는 도정을 밟지 않고 결혼하여 일생을 보내는

46) 심훈, 위의 책, pp.266~267.

조선의 여성을 해방하여 연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이해하고 있는 연애란 단지 '성교'를 의미할 뿐이다. "문학이이 곧 연애이고, 연애와 성교는 불가분의 것"<sup>47)</sup>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김연실에게, 그러한 문학관, 연애관을 제공한 것이 다름 아닌 '엘렌 케이와 구리가와박사[필자주:쿠리야가와 하쿠손]의 저서'<sup>48)</sup>였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엘렌 케이의 '연애의 자유'가 '자유연애'와 동의어가 되는 이러한 형국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엘렌 케이와 쿠리야가와 하쿠손의 연애론을 사람의 사회가 아닌 꿈나라의 이야기로 여기고 마는 김연실의 태도에서 비롯할 터이다. 이러한 김연실에 대해서 김동인은 편집자적인 태도로 "연애를 모르는 조선에 태어나기 때문에 연실이는 연애의 형식과 실체(감정이 아니다)를 몰랐다"<sup>49)</sup>고 설명해 주고 있다.

김동인은 표면적으로는 김연실의 엘렌 케이와 쿠리야가와 하쿠손에 대한 오해가, 김연실의 결혼가정에서의 불우한 성장과정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김동인이 김연실을 비롯해서 동경유학생 출신의 신여성들을 얼치기 선각자이자 문학가로 묘사한 데에는, 동경유학생 출신의 신여성에 대한 비하와 야유와 아울러 1920년대 동인지시대 문학에 대한 냉소와 비판이 담겨 있다. 그것은 김기림이 김동인보다 앞서 「貞操問題의 新展開」(1930)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1920년대 동인지문학 세대에 이르러 이광수가 제시한 엘렌 케이적 연애의 이상이 조선의 상황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기림이 '연애의 자연주의자'에게 연애의 자유란 너무나 웅색한 울타리였다고 했을 때<sup>50)</sup>, 그 자연주의자들이 김연실을 비롯한 신여학생으로부터 1920년대 동인지시대 문학자들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을 터이다.

47) 金東仁, 「金妍實傳」, 《文章》(第一卷第二輯), 1939.3, pp.33~34.

48) 김동인, 위의 글, p.35.

49) 김동인, 위의 글, p.40.

50) 김기림, 「貞操問題의 新展開」, 『金起林全集』(6), 深說堂, 1988, p.14.

## 7. 결론

한국과 일본의 근대문학에서 엘렌 케이의 사상은, 비록 일시적이거나 근대적인 개인의 자아발견, 성장, 그리고 국민국가 형성과 사회개조에 공헌하는 문학적 담론들과, 이러한 이념에 근간한 문학작품까지 생산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의 경우 외래의 지식, 즉 번역어로서 '연애'가 한국근대문학, 나아가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성의 특징적 국면들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시사한다. 엘렌 케이 사상의 자장 안에서 쓰여진 한국근대소설, 특히 앞서 검토한 세 편의 소설은 흥미롭게도 모두 성장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이광수의 『무정』의 경우, 연애와 결혼을 통해서 근대적 개인,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성숙'을 인생의 과제로 부여하는 동시에, 이 '성숙'한 개인의 결합을 통해 민족 변영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광수의 혼인론과 소설은, 연애의 본질이 개인의 육체적·감각적 욕구만을 만족시키는 '자유연애'가 아닌, 개체와 종족의 변영을 이상으로 하는 '연애의 자유'라는 주장으로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이광수의 연애·결혼에 대한 인식은, 연애를 단순히 인류보편의 정념이 아니라, 특별한 역사적·사회적 관계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서양에서 18세기 이후 정착, 확산되기 시작한 근대적인 연애관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광수의 『무정』과는 대척점에 위치한 김동인의 『김연실전』의 경우, 연애와 결혼이 근대적 개인, 민족의 성원으로서의 '성숙'이라는 과제와 무관하게, '상징적인 삶'을 위한 의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그것이 국민국가의 형성을 향한 지식인들의 열망이 사그라진 이후의 조선에서의 개인의 성장문제를 김연실이라는 여성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인종개량을 위한 우생학적 연애론으로서 엘렌 케이의 사상이, 조선의 경우에는 이광수를 제외하고 1920년을 계기로 점차 '자유연애'의 사상으로 수용되어져 간 사정은, 비단 근대문학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 사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본의 경우에도 쿠리야가와 하쿠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대에 이르러 엘렌 케이의 사상이 우생학의 논리나 국민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연애이상주의의 논리로 뒤바뀐다. 이러한 사정은 무엇보다도 본래 엘렌 케이의 사상 그 자체에 내재한 문제점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엘렌 케이의 사상이 가부장제의 규범으로부터의 해방을 지향하고,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부각시킨 점에서는 당시로서 획기적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렌 케이의 사상은 남녀의 성차(性差)와 모성을 지나치게 강조했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적인 성적 역할분담론으로 귀결되고 마는 모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연애가 인종의 개량에 공헌한다고 한 엘렌 케이의 사상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의 해방의 가능성을 모성 안에서 발견하려고 했던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 이론이 빈약한 논리를 지니고 있는 점은 엘렌 케이의 저작이 발표되던 당시부터 비판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sup>51)</sup>

그러나 조선과 일본에서 엘렌 케이의 인종개량을 통한 종족번영의 논리가 결락되고 마는 것은, 일차적으로 조선의 경우 1919년에서 1920년에 걸친 식민지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고, 일본의 경우 메이지기의 이상인 문명개화를 둘러싼 여러 담론이, 다이쇼 지식인들에게 공명을 얻지 못하고 폐기되기에 이르렀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이미 그 무렵의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은 엘렌 케이적 연애의 궁극적 이상인 인종개량이나 민족의 이상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사랑의 감정에 따라 연애와 결혼의 상대를 정하고, 또 사랑의 감정이 소진된 뒤에는 다른 연애와 결혼의 상대를 찾을 수 있는, 근대 서양의 연애·혼인의 풍속, 모드, 그리고 그것의 근간이 되는 남녀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조선의 경우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외

51) 內藤壽子, 「思想の芽ぶくところ—序論本間久雄と「婦人問題」」, 《文芸と批評》(第八卷第六号), 文芸と批評の會, 1997.11, p.38.

래의 지식이 조선어로 번역되고, 또한 그 번역을 가능하게 하는 재래의 지식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담론을 생산하는 경험이 일천했던 근대 한국의 지식적 풍토로 인해, 엘렌 케이의 사상의 본질적 요소들이 투입할 여지가 없었을 터이다.

한편 이광수와 심훈의 소설에서 엘렌 케이적 연애의 지식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달되는 양상, 그리고 조선에서 엘렌 케이가 소개되는 과정이 대체로 남성 지식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양상도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살펴본 소설에서 알 수 있듯이, 인종개량과 민족번영의 이상을 의미하든, 아니면 문명적인 연애와 결혼의 풍속을 의미하든, 조선에서 엘렌 케이의 사상은 항상 남성이 여성에게 가르치는 것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은, 우선 연애와 결혼의 신사상의 수용과정에서부터 성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적어도 조선의 경우만 한정해 보더라도 근대적 연애, 문명한 연애라는 것이, 남성에 의해 전유되고 다시 그것이 여성에게 가르쳐져야 하는 것이었다면, 그 가르침과 배움의 수직적 관계에서 엘렌 케이의 사상의 모성주의적 성격, 우생학적 논리, 그리고 그것이 지닌 정치적 함의는, 당연히 결락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모성이 지닌 가치의 측면보다도 모성이 남성성보다 우월하다는 엘렌 케이의 사상은, 엘렌 케이 사상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의 정치학에서 자연스럽게 소거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일본의 혼마 히사오와 쿠리야가와 하쿠손이 엘렌 케이의 모성주의적 성격과 우생학적 논리의 상당부분을 결락시켜버린 사정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훈의 소설의 경우, 한편으로는 엘렌 케이의 모성주의 논리를 선취해서 서사화해 냈다는 점은 놀랄 만 한 일이다. 바로 이상과 같은 사실들이 엘렌 케이를 통해서 한일 근대문학을 재검토함으로써 발견되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구인모, 『『무정』과 우생학적 연애론』, 《比較文學》(제28집), 한국비교문학회, 2002.
- 권보드레,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2003.
- 엘렌·케이, 本間久雄譯, 『婦人と道德』, 南北社, 1913.
- 엘렌·케이, 本間久雄譯, 『戀愛と道德』, 春秋社, 1923.
- 佐伯順子, 『戀愛の起源』, 日本經濟新聞社, 2000.
- 菅野聰美, 『消費される戀愛論』, 青弓社, 2001.
- 內藤壽子, 「大正期のエレン・ケイ—翻譯・解説・受容の力」學, 《文芸と批評》(第九卷四号).
- 堀場清子, 『『青鞜』女性解放論集』, 岩波書店, 1991.
- 本間久雄, 『エレンケイ思想の眞髓』, 大同館書店, 1915.
- 本間久雄, 熊坂敦子解説, 『現代之婦人問題』(近代婦人問題名著選集第5卷), 日本図書センター, 1982.

Abstract

**Ellen Key's thoughts in Modern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Ku, In-Mo

This thesis is based on investigating the effect of Ellen Key's thoughts in modern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Modern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found the vision of '*Modern Self*' and '*Social Revolution*' in Ellen Key's thoughts. In addition, some Korean writer had written novel that was based on Ellen Key's thoughts. It is interesting that Such Novel has form '*Bildungsroman*'. Ellen Key's thoughts is essentially Eugenic of motherhood and discourse of European romantic love. But her thoughts was changed into the simple discourse of romantic love in 1920's Korea and Japan. Because in that time, Korean and Japanese writer was interested in Modern european custom of love, marriage, equality between man and women, freedom of Self. That is the reason why Ellen Key's thoughts was not fully accommodated in 1920's Korea and Japa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Ellen Key's thoughts, We can find the characteristic aspects in modern Korean and Japanese literature.

**key words** : Ellen Key, Love, Modern literature

■ 위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 심사 완료 후, 11월 3일 게재가 확정되었음.